

연중 제18주일 (나해)

화답송 : 시편 77, 3과 4나ㄷ. 23-24. 25와 54 (©24나)

손상오 신부 작곡

(후렴) 주 님 은 하 늘의 양 식을 백 성 들 에 게 주 셴 네

1.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2.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 어,
3.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 네.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려 하노 라
그들이 먹을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 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당신 성지 로

주님의 영광을 그 분의 능하심을
하늘의 빵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오른손이 얻으신 그 산으로 이끄시니라

D.C.